



Esthetic Zone에서의 Ovate Pontic을 이용한 수복 증례

조성범*, 이규복, 이청희, 조광현 |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Esthetic zone에서 치아가 결손된 경우 가능한 치료로 임플란트 보철과 pontic을 이용한 고정성 보철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 ovate pontic을 이용한 고정성 보철을 통해 심미적인 수복이 가능하다.

ovate pontic은 1933년 Dewey와 Zugsmith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심미적이고 청소가 용이한 pontic으로 주장되었으나 잔존치조제에 압력을 가해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청소하기 곤란한 pontic 형태로 오인받았다. 여러 임상 연구와 최근의 조직학적 연구에서 적절히 형성된 ovate pontic은 염증 없는 각화된 건강한 점막을 형성함을 보였으며, 현재 임플란트 보철과 고정성 보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ovate pontic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1. 인상채득전 ovate형의 치조제에 만드는 방법, 2. 인상채득후 모형에서 형성하는 방법, 3. 치조제 증대

술을 통한 방법, 4. 발치와에 즉시 ovate형 치조제를 형성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치아상실시 ovate pontic을 통해 자연스런 치은, 치간 유두 형태 그리고 더 높은 청결성을 획득할 수 있으나 pontic 하방 점막을 ovate한 concave 형태로 sculpturing하기 위해서는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적절히 제작된 임시보철물을 통해 점막의 sculpturing이 완성되면 임시보철물과 유사한 pontic 형태를 가진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첫째 발치 후 즉시 ovate pontic을 제작하는 방법, 둘째 치조제 증대술을 이용한 방법, 셋째 치조제 흡수가 심한 경우 교정 치료를 동반한 방법들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몇 가지 증례 보고와 함께 이상적인 임시보철물의 pontic 형태를 최종 보철물로 옮기는 방법 또한 보고하는 바이다.